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화소와 민족기원론*

전진국**

【국문초록】

근대 일본 학자들은 곰 화소를 주요 근거로 하여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허구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한국 학자들은 일본인들의 그러한 논조를 비판하고 고조선 건국 신화의 사실성을 모색하고자, 곰의 상징성 및 곰 이야기의 역사성을 깊이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곰은 고조선 시대의 부족을 상징한다는 토tem 설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곰을 숭상하며 토tem으로 여기는 경향은 시베리아 북방 지역에서 성행하였으므로, 그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주민이 옮겨오거나 그 문화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민족기원론이 함께 논의되었다. 고조선 건국 신화 속의 곰을 토tem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일본인들의 고조선 건국 신화 부정론을 극복하고 역사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을 토tem으로 파악하고 곰 숭배 사상의 원류가 북방 문화라는 시각이 완벽한 해석이라 하기는 어렵다. 고조선 건국 신화를 비롯한 고대 건국 신화의 전반적인 맥락은 천신과 지신의 만남에 의한 건국 시조의 탄생이라는 구조이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단군신화에 비교해 볼 때 곰에 해당하는 존재 역시 신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수록된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역시 지상의 신을 상징화한 존재로 보아야 하겠다.

【주제어】

고조선, 단군, 단군신화, 곰, 민족기원론

* 이 논문은 홍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초빙 조교수

◆ 차례

1. 머리말
2. 일본 학자들의 부정론
3. 한국 학계의 역사적 접근
4. 곰 토tem 설의 문제와 신화의 원형
5. 맺음말

1. 머리말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단군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조선〈왕검조선〉」 조항이 첫 장으로 편제된 이유는 그것을 자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사 인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단군은 천명을 받은 첫 임금으로, 기자는 그 뒤 문명 교화를 열은 임금으로 상징화되었다.¹⁾

근대 역사학에 들어 그러한 단군 인식은 크게 바뀌는데,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관심과 소위 실증사학에 바탕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부터이다. 그들의 연구는 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의 윤색·가작을 논증하기 일색이었다. 그에 대한 반발과 민족성 고취의 목적성을 갖고 최남선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연구가 이어졌다.

해방 뒤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한국 학계의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많은 양이 축적되어 갔다.²⁾ 그 결과 적어도 한국 학계에서는 비록 후대의 윤색이 더해졌을지라도 원본만큼은 실제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며, 단군 역시 실제의 고조선 왕을 신화화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구축되었다.³⁾

1) 朴光用, 「檀君認識의 歷史的 變遷-조선시대-」,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증보판), 159~173쪽.

2) 고조선 건국 신화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필영, 「단군 연구사」, 『증보판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초판 1994).

고조선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인식이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화는 한국사의 첫 장으로 인정된다. 비록 신화일지라도 한국사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역사 기록이므로, 그 연구는 당연히 민족의 종족적·문화적 기원 및 형성에 관한 논의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더하여 주제의 특징상 그 연구는 다른 어떤 논의보다도 '민족'을 화두로 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촉발하였다.

한편, 단군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대적 배경 상 근현대 역사학의 주요 화두는 '민족'이었다. 그러한 경향 속에서 상고사 분야에서는 민족의 기원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 1980년대까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⁴⁾ 고조선 건국 신화에 관한 연구와 민족기원론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결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이 주요 화두였던 지난날 함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 종족적·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화소는 곰과 천손강림의 내용이다. 그에 대한 고찰은 한국 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편으로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일본 연구에 대응하며 민족주의 시대 민족사의 기원을 찾는 주요 주제였다.

따라서 먼저 고조선 건국 신화 연구에서 이루어진 일본 학자들의 민족기원론 및 민족 문화론과 관련된 견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뒤 한국 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곰 화소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를 통해 올바른 해석의 방안과 신화에 깃든 역사성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한편, 이는 고조선 건국 신화가 형성되는 시대적 배경과 단군조선

3)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역사성을 고찰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연구에서 자세히 검토되었다. 김성환,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2022.

4) 근대 이후 민족기원론에 관한 담론의 형성 및 전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오영찬,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한국 상고 민족 담론의 창안-」 『한국 문화연구』 37, 2019.

의 주민 계통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고조선 건국 신화를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논의의 기초를 더욱 다지는 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일본 학자들의 부정론

에도시대부터 고조선 건국 신화를 접한 일본인들은 단군을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기에 등장하는 스사노 미코토(素戔嗚尊)라 하거나, 그의 아들로 파악한다. 1799년 대마도 사람 반 코우케이(伴蒿蹊)가 쓴 『閑田筆耕』에서 단군을 스사노 미코토라 하는 설명이 처음 확인된 뒤, 1870년 출간된 키 시게즈구(紀繁繼)의 『八坂社舊記集錄』에서는 그에 더해 스사노 미코토가 내려온 '신라의 曾尸茂梨'가 '낙랑의 牛頭山'이라 하기도 한다.⁵⁾ 그러한 단군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져, 식민사관의 대표적 논조인 日鮮同祖論에 하나의 논거로 활용된다.

오치아이 나오즈미(落合直澄)는 『동국통감』을 들어 고조선 건국 신화를 소개한 뒤, 단군이 곧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 '新羅明神' 또는 '韓神'이라 한다. 단군의 출자에 대해서는 역시 『日本書紀』와 『出雲風土記』에 전하는 스사노 미코토와 연결시켜 그의 아들이라 하고, 스사노 미코토가 아들 단군을 신라에 남기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단군이 조선의 왕이 된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스사노 미코토의 아들 이타케루노 미코토(五十猛神)와 단군을 같은 신이라 하고, 이러한 관계를 한국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한다.⁶⁾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논조는 단군을 실존의 역사적 인물과 같이 서

5) 今西龍, 「檀君考」, 『靑邱說叢』 1, 京城: 靑邱學會, 1929; 『朝鮮古史の研究』, 京城: 國書刊行會, 1970, 110~114쪽 재인용.

6) 落合直澄, 「檀君」,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藏版, 1888.

술하되,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여 계통을 파악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에 어떠한 근거나 논증이 수반된 것은 아니었다.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논설이고 자국 중심의 일방적 해설이었다. 단군을 일본 신화 속으로 끌어들여 실존성을 부여하는 경향은 에도시대 말부터 천황의 권위를 신성시하며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기 신화를 사실의 역사로 간주하고 강조하는 일본 국수주의 국학 안에서 보았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초기 식민사학으로 이어져 일선동조론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근대 역사서 편찬 체제로 한국사(단군 ~ 고려 시대)를 처음 집필한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 1854~1922)는 먼저, 한국 문헌에 전하는 단군의 개국 연대는 믿을 수 없다고 전제한다. 그리고는 일본의 개국 연대에 맞추어 기원전 500년경 즉 商末에 해당하고, 단군신화를 통해 그 시기부터 평안도 지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환인, 환웅, 단군을 각각 일본 신화의 이자나기(伊弉諾), 스사노오(須佐之男), 이타케루(五十猛神)와 동격으로 보는 기존의 해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는 것(牽強)이라 하여 반대한다.⁷⁾ 고조선 건국 신화를 일본 신화와 연결 짓고 그 안에서 파악 하던 기존의 시각을 비판함은 진일보한 견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고조선 건국 신화를 부정하는 논조에 바탕한 것이었다.

한편, 근대 일본의 식민사학은 일선동조론을 부정하고 일본 민족의 우상화와 주변 민족에 대해서는 폄하로 새롭게 전개된다. 그러한 논조는 주로 동양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년)라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로서 고조선 건국 신화를 처음 고찰한 시라토리는 기자조선·위만조선 그리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언급하며 이를 사실상 漢 영역

7) 林泰輔, 「太古史 開國ノ起源」, 『朝鮮史』, 東京: 吉川半七板鉛活字本, 1892 (『조선사』 원문, 인문사, 2013, 57~58쪽).

의 일부 즉, 중국사로 봄이 온당하다고 한다. 본론인 고조선 건국 신화에 관해서는 불교와의 연결성을 주로 고찰하며 고구려 장수왕 때(413~491년) 만들어진 신화로 추정한다. 고조선 건국 신화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사의 시작은 삼국시대라 하였기 때문에, 고조선 건국 신화를 대상으로 고조선의 역사 및 민족문화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언급조차 될 수 없었다.⁸⁾

그러한 시각은 이후 오다 쇼고(小田省吾)와 이마니시 류(今西龍)로 이어지는데, 시라토리와의 다른 점이라면 그들은 고구려가 아닌 고려시대에 고조선 건국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에 따라 고려시대의 산신신앙, 평양의 지역 연기 설화, 불교의 제석신앙, 약사신앙, 도교사상, 그리고 고려 후기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논의되었다. 고조선의 역사와 점점 더 멀게 신화를 해석함으로써, 고조선의 역사 나아가 민족기원론에 대한 논의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마니시의 글에서는 민족의 계통 및 문화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그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부루 또는 주몽이 단군의 아들로 설정됨은 부여·고구려가 있던 북방 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 신화의 내용은 북방 통구스족의 문화로, 聖子出生傳説의 유형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 神獸交媾·人獸交媾는 天神地祇를 격노케 하는 사항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 韓種族의 전승 및 문화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한국의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개, 고조선 건국 신화는 북방 문화의 소산으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韓 종족과는 관련 없고, 韓 종족은 오히려 일본과 같은 종족적·문화적 계통이라 한다.⁹⁾ 이마니시는 고조선 건

8)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東京: 學習院大學, 1894; 『白鳥庫吉全集』 3, 東京: 岩波書店, 1970.

9) 今西龍, 「檀君考」, 『青邱說叢』 1, 京城: 青邱學會, 1929; 『朝鮮古史の研究』,

국 신화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라 하면서도 북방 퉁구스 문화 계통의 신화적 유형이 있음을 은연중 인정한다. 그러한 모순을 수습하고자 한국사에서 북방을 분리하여 떼어내고 韓 고유의 역사·문화와 관련 없다고 하는 맥락이다.

한편,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는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곰 이야기는 후대의 개작으로 파악한다. 그는 고구려 건국 신화를 고찰하면서 내용의 상관성을 들어 고조선 건국 신화를 함께 언급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마니시의 견해를 수용하여 고조선 건국 신화는 고구려 건국 신화를 차용하였다 하여 더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인식에서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은 고구려 건국 신화에 쓰인 熊心山·熊神山·熊心淵과 관련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 전승에서 ‘熊’은 곰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닌데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는 곰 형태의 熊女라 하여, 이는 기괴하며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후세에 어떠한 이유로 개작된 것이라 한다. 하지만 곧이어 곰이 동굴에 들어가 썩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여러 신화에 공통으로 보이는 靈藥, 여성의 성년 의례, 熊神에 관한 제의적 사례 등의 화소로 풀이한다. 그러한 화소가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들어가 있는 연유는 원시적 정신 형태에서 유래하여 고려시대까지 무속의 설화 및 의례에 잔존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시베리아 방면의 여러 민족 나아가 그리스 아르테미스 신화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그러한 웅신·웅녀에 관한 관념은 외부에서 수용되어 한국 고유의 제의 관념에 결합한 것으로 추정한다.¹⁰⁾

웅녀에 관한 미시나의 해석은 그의 편저 『三國遺事考證』에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즉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에 관한 내용은 웅신에

京城: 國書刊行會, 1970.

10) 三品彰英, 「久麻那利考」, 『建國神話論考』, 東京: 目黒書店, 1937(『三品彰英論文集 第二卷 建國神話の諸問題』, 東京: 平凡社, 1977, 429~435쪽).

대한 신앙 및 샤머니즘에서 유래한 것으로, 곰 신앙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북아메리카에 걸쳐 넓게 분포함을 전제로 한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원류인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주몽의 어머니 유희가 웅심연에서 천제 해모수와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고조선 건국 신화의 웅녀 이야기 역시 곰 신앙이 결합된 것이라 한다.¹¹⁾

미시나의 연구는 신화의 내용 분석뿐 아니라 고대 祭政의 실상과 곡령 신앙·농경의례의 양상 등을 탐색해 종래 신화에 대한 인식과 자료의 폭을 확대시켰다고 평가된다.¹²⁾ 그러나 한국 고대의 문화 기원에 대해 남방문화권 설을 제기하고 외부의 영향을 강조하는 타율성론에 입각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식민사학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연장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¹³⁾

외부의 문화적 요소가 가미되어 고조선 건국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은 이후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의 논고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단군의 어머니가 웅녀라는 화소는 만주 통구스족에서 암컷 순록이 하늘에서 내려와 70여 세의 노옹과 결혼하여 태어난 자손이 에벤키(Evenki)라는 신화와 유사하며, 그러한 수조신화는 시베리아 지역에 널리 걸쳐 분포하는 내륙형의 건국 신화라 한다. 그리고 햇빛을 피해 동굴에서 금기함은 북방계의 일광감정 신화와 남방계의 日子 신화와도 통하는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고조선 건국 신화에는 북방과 남방의 문화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고 하며, 남북 문화권의 접촉점이 조선(한반도)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말한다.¹⁴⁾

11)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 上, 東京: 塙書房, 1975, 305~306쪽.

12) 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 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5쪽.

13) 문창로, 「한국 고대 건국 신화의 이해 방향」,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1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출판사, 2014, 49쪽.

14) 井上秀雄, 「朝鮮建國神話」,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株式會社, 1974, 494~495쪽.

다나키 토시아키(田中俊明)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각각 인용한 『고기』와 『본기』는 11세기 이전의 문헌으로 소급됨을 논증함으로써, 고조선 건국 신화가 고려 후기에 가작되었다는 이마니시의 통설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後漢 때의 畫像石(중국 山東省의 武氏社堂 石室)에 있는 곰과 호랑이 그림이 고조선 건국 신화와 같은 내용이라는 김재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신화의 원형은 삼국시대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¹⁵⁾

한편 사이토 타다시(齋藤忠)는 중국 集安市 고구려 씨름무덤(角抵塚)의 벽화 중 나무 아래에 곰과 호랑이 그림을 발견하고, 이는 고조선 건국 신화의 신단수 및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여 그린 그림이라 한다.¹⁶⁾ 그에 따라 고조선 건국 신화는 적어도 씨름무덤이 만들어진 5세기 전반 이전에는 존재하였다고 한다.

근래 들어 일본 학계에서는 고조선 건국 신화가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다는 통설에서 벗어나 11세기 이전 또는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견해가 제출되어 시각의 변화를 일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고조선의 역사 및 민족문화를 고찰한다던가 그에 대한 반영을 논하는 모습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제강점기의 오다 쇼고, 이마니시 류, 그리고 미시나 아키히데의 연구에서 종족적·문화적 원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주의를 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를 하면서도 결국은 고려시대 승려가 만들어낸 전승이라 하므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5) 田中俊明,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33 (1982.6月号), 東京: 自由社(송지연 번역,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싸고—사료비판의 재검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84~210쪽).

16) 齋藤忠,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圖」, 『東アジア葬・墓制の研究』, 東京: 第一書房, 1987(김진광 번역,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3. 한국 학계의 역사적 접근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 건국 신화를 조작 또는 허황된 이야기로 취급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곰(웅녀)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곰이 사람이 되고 그 곰이 단군을 낳았다”는 내용은 인간사에 있을 수 없는 일 이므로, 신화를 불신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이를 황당한 이야기로 취급하였으며, 『제왕운기』의 고조선 건국 신화를 확인한 뒤 ‘熊女’는 ‘孫女’의 오기라 하거나, 반대로 ‘손녀’가 ‘웅녀’의 오기라 하기도 하였다. 반면 긍정적 시각에서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역사성을 고찰하려 했던 한국 학계는 곰의 실체 및 상징성 또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였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은 신화의 허구성과 사실성을 가르는 제1의 논점이었다.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를 비판하며 고조선 건국 신화를 가장 깊고 넓게 연구했다고 할 수 있는 학자는 최남선이다. 그는 인류학·사회학 분야의 근대 학문을 적용하여,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과 호랑이를 토테미즘(Totemism)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고대 원시 사회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고, 세계사 곳곳에 그러한 여러 사례가 있음을 소개한다. 원시 사회의 보편성을 논거로 하여 고조선 건국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 역시 토테미즘의 흔적이며 원시 문화의 반영이라 한다. 그 뒤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동족 내의 혼인에서 벗어난 이족혼(Exogamy)의 사례로, 원시 사회 발달의 한 유형이며, 그 결과로 태어난 단군 그리고 그에 의한 조선의 건국은 종족 조직을 파괴하고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¹⁷⁾ 최남선의 논지는 고조선의 종족성 및 민족문화의 특수성보다는, 원시 사회와 그 문화의 보편성 속

17) 崔南善, 「檀君及其研究」, 『別乾坤』 1928년 5월호(전성근·허용호 옮김, 『최남선 한국학 총서 7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251~255쪽); 「檀君古記箋釋」, 『思想界』 1954년 2월호(앞의 책, 289~292쪽).

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는 토테미즘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곰 화소를 역사적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열었고, 이후 여러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일제강점기 근대 학문을 수학하여 그 관점에서 고조선 건국 신화를 해석한 또 한 명의 학자로 백남운을 들 수 있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 유클론에 바탕하여 역사 해석을 시도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백남운은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를 통해 신화의 배경 즉,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환경은 곰과 범 등의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라 한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軍長을 표상한 것이며,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생활하였다 함은 여계 추장과 남성 군장이 병존하였던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후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가 인간세계를 다스렸다 함은 남계 추장제의 수립이며 추장 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단군 이전 환웅과 곰의 결합은 한국사의 출발점이자 민족 발달사의 본원이 아니라, 비교적 후기의 원시적 생산 관계가 붕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¹⁸⁾ 백남운은 토테미즘을 적용한 최남선의 견해를 소개하면서도,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즉 곰과 호랑이는 부족의 상징이자 표상이 아닌, 추장 개인을 표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최남선과 백남운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단군 부정론을 비판하고 역사적 해석을 시도하며 원시 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신화임을 주장한 대표적 국내 연구라 할 수 있다. 구체적 해석 및 논증의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곰을 부족의 토템이라 하고 그를 통해 사회발전 단계를 가늠하였다는 점에서 논지의 큰 틀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두 학자의 시각은 해방과 분단 이후 남북한 학계에 계승되어 고조선 건국 신화의

18)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개조사, 1933(윤한택 역, 『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현실, 1989), 28쪽.

곰과 호랑이를 해석하는 주 논지를 이룬다.

분단 직후 고조선 건국 신화 연구는 북한 학계에서 더 활발했다. 북한 학계에서 초기 고조선 건국 신화 연구를 이끌어간 대표적 학자는 리상호와 리지린이다.

리상호는 『삼국유사』를 역주하였고, 고조선 건국 신화에 관해 3차례 논고를 발표하였다. 신화는 실제의 역사를 바탕으로 후대에 만들어진다는 통론에 입각하여,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여러 화소를 고조선 시대의 역사와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는 내용은 대규모의 고조선족이 일정한 지역으로 대거 이동한 사실을 표현한 기록이라 하고, 이후 환웅에게 찾아온 ‘곰’과 ‘호랑이’는 씨족 집단의 토텐이자 이름이라 추정한다. 그 근거로 부여의 5가 및 세계 곳곳의 원시 사회에서 동물을 씨족의 이름으로 삼은 사례를 소개하고, 곰과 호랑이가 최고의 맹수이며 숭배된 사례, 곰과 관련된 민속 및 지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에 더해 『삼국유사』 고조선 조의 ‘一熊一虎’는 한문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는 의인법적 표현이라 하고, 실재는 각각 호랑이와 곰 부족 출신의 남녀 인물이라 한다. 이어 “그 둘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 하였다(願化爲人)” 함은 전염병에 걸려 치료를 부탁한 것이고, 그에 대해 환웅이 약과 축을 내어 주며 금기하게 하자 곰 부족의 여인은 병을 치료하여, 이후 환웅과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¹⁹⁾ 신화의 내용을 구체적인 실상으로 구현하는 추정은 근거와 논증이 미약하고 다소 억측에 가깝다. 그러나 곰과 호랑이를 문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닌 씨족 집단 또는 그 씨족 집단의 일원을 표기한 글자로 해석함은 인류학적 연구와 유사 사례를 적지 않게 제시함으로써 나름의 논증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리지린 또한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를 각각 두 씨족의 토텐으로 보

19) 리상호, 「단군 설화의 역사성」(상)(하) 『력사과학』 1962년 3~4호 ; 서영대 편 집, 『<북한학계> 단군 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1995, 42~57쪽.

았다. 그는 내용상 곰이 인간으로 화신하고 국왕과 혈연적 관계이기도 한데, 이는 곰 또는 호랑이가 동물의 왕인 지방에서 인간의 왕으로 군림한 자가 곰 또는 호랑이를 토tem으로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한다. 이는 곰과 호랑이가 초자연적 영물로 신앙화된 사상보다 더 원시적 사상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사회 발전 단계를 고찰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곰과 호랑이의 토tem 씨족 사회 단계, 군사 수장으로서는 단군이 등장하는 단계, 계급국가 형성 뒤 고조선의 국왕으로서 '단군'이 등장하는 단계로 고조선사를 구분하였다.²⁰⁾ 리지린은 고조선 건국 신화뿐 아니라 연대, 영역의 변천, 종족성 등 고조선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한 첫 연구자이므로, 남북 학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²¹⁾ 고조선 건국 신화를 근간으로 위의 세 단계로 고조선사를 구분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연구 및 개설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발전 단계에 입각하였다는 점 외에도, 중국 사료에 바탕한 외부적 요소인 기자와 위만을 배제하고 국내 유일의 고조선 관련 문헌 사료인 고조선 건국 신화에 근거하였다는 점에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60년대 중반 리상호와 리지린을 필두로 한 북한 학계의 고조선·단군 연구는 정치적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과 범은 고조선 시대 고조선족을 이룬 일부 씨족들의 이름 즉 토tem이라는 학설이 정설로 자리 잡았다. 더하여 곰과 범이 같은 동굴에서 살았다 함은 곰 씨족의 여자와 범 씨족의 남자가 부부로서 일부일처제의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여 사회 발전 단계를 함께 추정

20) 리지린, 『고조선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도서출판 열사람, 1989, 115~117쪽).

21) 이형구,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그 후」, 『한국사시민강좌』, 2011 ; 박준형, 「리지린의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古朝鮮의研究』의 발견과 검토」, 『선사와 고대』 62, 2020.

하였다.²²⁾ 이와 같은 풀이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고, 곰 씨족의 세력이 범 씨족 세력보다 우세하여 종족 수장의 지위를 곰 씨족 출신 귀족들이 차지하였던 실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추정을 더하는 논조로 계승·발전하였다.²³⁾

이후 북한 학계의 고조선·단군 연구는 80년대 후반 들어 다시 활성화 되는데, 이때 고조선 건국 신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는 강인숙이다.²⁴⁾ 그는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이야기는 그에 선행하는 원시 신화 형태의 곰 설화가 먼저 있었고, 그것이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접목되어 꾸며지는 변형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원래의 곰 설화는 곰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였고, 이는 고조선 건국 이전 태고적부터 존재하였던 동물숭배 관념에 바탕하여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신화가 고조선 건국 신화에 접목된 뒤 곰과 호랑이는 곧 씨족의 명칭이라 하여, 사실상 토렘으로 여기는 인식에 맥을 잇고 있다. ‘熊女’라는 표기 역시 ‘곰 부족의 여인’이라는 의미로 씨족의 한 성원 이름이라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단군의 출생 이야기는 태백산 일대 곰과 호랑이를 씨족의 상징으로 하는 각각의 원주민 종족이 있었고, 그곳에 천신을 숭배하는 환웅이 거느린 이주민 종족이 들어와 곰 씨족과 혼인 관계를 맺어 종족의 융합 또는 동맹이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한다고 풀이한다.

한편, 북한 학계에서 모든 연구자가 곰과 범을 토렘으로 풀이하였던

22)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반영한 단군신화」, 『조선전사』 2(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서영대 편집, 『〈북한학계〉 단군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1995, 347쪽.)

2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반영한 단군신화」, 『조선전사』 2(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서영대 편집, 『〈북한학계〉 단군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1995, 650쪽.)

24)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2) 『역사과학』 1988년 4호(서영대 편집, 『〈북한학계〉 단군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1995, 404~416쪽.)

것은 아니다. 흥기문은 곰과 범이 토렘에 해당한 것이나 아니나 하는 문제는 속단을 내리기 어렵다 하며, 의견을 유보한다. 다만 신화에 곰과 범이 등장함은 두 동물에 대한 고대 사람의 사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며, 한국의 건국 신화 가운데 한 이체를 이루는 것이라 하여 특이한 유형의 설화임을 지적한다.²⁵⁾

이어 남한 학계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해방 이후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을 토테미즘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김정학의 연구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신화가 대단히 오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며, 이를 통해 신화의 역사성과 고대의 민속 신앙을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호랑이와 더불어 곰 또한 예부터 신으로 숭배하였는데, 熊神山·熊山 등의 지명이 그 흔적이라 한다. 그리고 통구스, 필란드, 길리약, 아이누 등에서 곰을 숭배하는 사례를 들어, 고조선 건국 신화 역시 곰 토테미즘 신앙이 반영된 것이라 한다.²⁶⁾ 최남선·백남운과 같이 곰 토렘 설의 입장이지만, 부족의 상징이 아닌 신으로 섬기는 신앙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듬해 이병도는 아사달의 명칭 및 위치에 집중하여 고조선 건국 신화를 고찰한 연구를 발표한다. 그 연구에서 熊·熊女는 지상족 즉 국신족의 실질적인 여성을 의미하며, 『제왕운기』와 『세종실록』 지리지의 ‘孫女’는 ‘웅녀’를 개작한 것으로 원형을 잃은 설화라 한다. 곰으로 표상화된 그 지상족의 실질적인 이름은 예맥계의 고마·개마이며, 이는 지신을 대표하는 ‘熊’의 邦語와 일치하므로, 웅녀는 곰 토렘의 여성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라 한다.²⁷⁾

25) 흥기문, 「단군 신화」, 『조선신화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4(서영대 편집, 『<북한학계> 단군 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1995, 278~279쪽).

26) 김정학, 「단군신화와 토테미즘」, 『역사학보』 7, 1954.

27) 李丙燾, 「阿斯達과 朝鮮-특히 그名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논문집』 2, 1955;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30쪽.

그 뒤 황폐강은 고조선 건국 신화에 대해 곡물 재배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농경 관련 의미가 반영되어 있고, 두 개의 화소가 짝하여 전개되는 雙分體制(Dual Organ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는 신설을 발표한다. 그 논지 속에서 처음 동굴에 함께 사는 이야기의 곰과 호랑이는 각 씨족 집단의 토탐이고, 이후 곰이 웅녀가 되어 환웅과 관계를 맺는 단계에서의 두 개체는 각각 땅과 하늘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그에 따라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시조 단군이 탄생했다는 내용이며, 그것이 祭儀的으로 기념·재현되면서 신화로 전해진 것이라 한다.²⁸⁾ 곰을 토탐이며 땅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이병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러한 해석이 남한 학계에 굳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한 학계에서 고조선 및 단군신화 연구 1970년대부터 담론을 형성하며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곰에 대해 적극적 해석을 시도하며, 신화를 고조선의 역사 인식의 중요 사료로 취급하는 경향의 대표적 연구자는 김정배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전통 신앙의 산신은 호랑이이고 곰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데, 國祖 단군의 탄생에 곰이 등장함은 곰을 숭배하는 주민 집단과 연관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시베리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곰 숭배 사상을 주목한다. 그리고 레빈(M.G. Levin)과 시로코고로프(S.M. shirokogoroff) 등과 같은 서양 학자들의 시베리아 고아시아족 이론을 수용하여 그것이 신석기시대의 문화이며, 그 문화 및 주민의 유입으로 설명한다. 즉 신석기시대 시베리아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던 고아시아족은 자신들이 곰의 자손이라는 토데미즘이 있었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고아시아족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들어와 신석기시대를 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족 구성의 주요 기층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²⁹⁾ 따라서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들어가 있는 곰에 관한

28) 黃滄江, 「檀君神話의 한 研究」, 『백산학보』 3, 1967, 111~131쪽.

29)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내용 역시 그러한 신석기 고아시아족 문화의 일부로 파악한다.

더하여 김정배는 고조선 건국 신화에 제시된 단군의 개국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 단군조선의 실질적인 건국 연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는 차례로 『魏書』, 『古記』, 『唐襄矩傳』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간순에 따른 체계적이며 일관성을 가진 서술이라 한다. 서기전 2333년을 절대연대로 삼기에는 다소 짜임새가 없지만, 문헌에 제시된 그 연대는 충분히 숙고할만한 사항이라 한다.³⁰⁾ 고조선 건국 신화에 대한 김정배의 이와 같은 접근은 신화를 후대의 가작으로 파악한 초기 일본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며, 신화로 접근하는 국내 학계의 경향에서도 한 발 더 나가 고조선 연구의 사료로 취급한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신석기 고아시아족 설은 김정배 외에도 1970~80년대 한국의 민족문화 및 종족적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연구의 주요 가설이었다. 천관우는 곰과 범을 숭배하는 선주 어렵민(고아시아인 또는 고시베리아인)과 천제의 아들로 상징되는 후래 농경민(북몽골인 또는 알타이족)의 동화 또는 교체를 반영한다고 하며 오늘날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려준다고 한다.³¹⁾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환웅을 이주민 종족, 곰으로 상징되는 집단을 원주민 종족으로 보는 북한 학계 강인숙의 견해와 유사한 측면도 볼 수 있다.

고고학계에서도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화소는 기본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곰 숭배 사상과 닿아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고고학적 논의를 더해 그 가설에 힘을 보탤다. 시베리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유문토기(Kammkeramik)와 한국 빗살무늬토기와 유사성, 무덤에 묻혀있는 시

30) 김정배, 「고조선과 비파형동검의 문제」,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312~323쪽.

31) 천관우, 「환웅족의 등장」, 『신동아』 6월호, 동아일보사, 1972(『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2~4쪽).

체의 머리 방향이 똑같이 동쪽이라는 것 등이 주요 논거였다. 그 뒤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 역시 새로운 주민의 유입을 상정하는데, 통구스족 또는 알타이족의 유입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그 가설은 언어의 유사성, 청동기의 양식과 재질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든다. 통구스·알타이족이 앞서 살고 있던 고아시아족을 흡수하면서 청동기시대 문화를 형성하고, 그 청동기시대의 주민이 문헌에 나타나는 韓·濊·貊이며, 이들이 한국 민족 기원의 기본이 된다는 논조이다.³²⁾

또는 고조선 건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인물의 계보와 그 문화적 계통, 그리고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앙·사상·정치·생산체제 등을 고고학·인류학의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도 있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 연구에서는 고조선 건국 신화에 깃든 종족적·문화적 배경은 스키타이 문화를 원류로 한 시베리아 북방계 문화가 근간이라 주장한다.³³⁾

최근 고조선 건국 신화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 못지않게 신화학, 민속학, 어문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고, 그들 연구 역시 곰 화소에 논의가 집중됨을 볼 수 있다. 시베리아·만주 지역에 곰과 관련된 신앙 및 민속이 넓게 분포하고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화소 역시 이와 연결하는 해석은 근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요 연구 경향이다. 가령,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동물의 최고 신이 곰이고, 곰이 동물을 주재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결정짓는다 여기며, 인간이 죽으면 곰의 세계로 가서 곰신이 되므로 자신들의 조상이 곧 곰·곰신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 곰·웅녀가 단군의 어머니로 들어간 배경 그리고 단군이 죽지 않고 산신이 되었다는 내용 역시 그러한 시베리아 지역의 곰 신앙

32) 金元龍, 「韓民族의 形成과 先史時代」, 『韓國學入門』, 대한민국학술원, 1983 ; 金廷鶴, 「韓國民族의 原流- 文獻 및 考古學的 考察」, 『韓國史論』 14, 국사편찬위원회, 1984.

33) 이은창, 「삼국유사의 고고학적 연구- 단군신화의 고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281~314쪽.

및 민속과 연결된다고 보는 연구가 대표적이다.³⁴⁾ 그밖에 만주-통구스족의 여러 곰 신화를 직접 소개하며 고조선 건국 신화와의 유사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³⁵⁾

또는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마늘(蒜)과 쑥(艾)을 민속 식물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이를 유사 이전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했던 곰파(*Allium ursinum*)와 고대 세시 음식 재료이며 약초이기도 했던 식물이라 고증하는 연구도 있다.³⁶⁾ 그 고증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곰 신화의 공통성 및 역사적 상징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들 연구에 힘입어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역사성 및 실제성에 논증을 더하는 역사학계의 연구가 이어 제출되기도 하였다.³⁷⁾ 그에 따르면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이야기에서는 곰에 대한 숭배 및 곰과 인간이 대칭적인 존재라는 인식 등의 토테미즘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고조선 건국 신화는 전반적으로 한반도 지역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행하는 단계의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화소를 주제로 한민족의 종족적 기원 및 정체성에 관한 논의 또한 일부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신화의 곰은 곰을 토렘으로 하는 종족의 표상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넘어, 이를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貊族과 연결시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³⁸⁾ 더하여 호랑이는 호랑이를 토렘으로 하는 종족이며 이는 濊族과 연결하고, 환웅 집단은

34) 이정재,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1997, 86~91쪽.

35) 박진석,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곰 신화의 양상과 유형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6, 2011 ; 김관웅,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동이문화의 연관성-곰 토렘 숭배를 주축으로 한 신화전설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5, 2011.

36) 김재희, 「유라시아 곰 신앙과 단군신화의 쑥과 마늘을 통해 본 웅녀의 재해석」, 『한국민속학』 67, 2018.

37)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38) 신용하,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새를 토렘으로 하는 종족이라 하며 이를 韓族과 연결한다. 그리고 단군 조선은 이 세 부족을 통합한 연맹국가라 한다.

이러한 주장에 가세하여 범을 토렘으로 하는 예족의 신앙이 오늘날 호랑이를 산신으로 여기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반면, 곰을 토렘으로 하는 맥족은 환웅족 문화에 동화되어 곰 신앙이 널리 전승되지 못했다고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³⁹⁾ 나아가 이러한 토렘 문화가 한국문화의 정체성이며 그 문화의 회복과 현대적 계승을 말하기도 한다.

고조선·단군에 관한 남한 학계의 연구는 70년대 이전까지는 양적·질적으로 북한 학계에 비해 저조하였다. 시베리아 민족기원론 및 주민교체설이 제기되고, 80년대 이후 연구가 급격히 진척되면서 북한 학계의 연구와 어느 정도 비견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그에 대한 반론이 형성되고, 오늘날은 여러 전공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을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하는 다수의 견해와 의견을 달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한 시각의 연구에서 사실 민족기원론과 관련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 장을 바꾸어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을 토테미즘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곰의 상징성 및 실체를 살펴보겠다.

4. 곰 토렘 설의 문제와 신화의 원형

1970~80년대 시베리아 기원설이나 2단계 주민교체설로 한국의 민족 기원을 파악하는 시각은 이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며 논지의 부분적

39) 임재해, 「고조선시대 곰과 범의 역사적 실체와 토렘문화의 재인식」, 『유라시아문화』 6, 2022.

비판이 제기되었다. 먼저 고고학계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돌무덤과 빗살무늬토기는 시베리아 지역보다 중국의 하북성 북부와 요령성 지역, 그리고 만주 지역 등을 포함하는 渤海沿岸의 것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그 지역의 유물들이 시베리아 지역보다 연대가 더 이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하여 북방 시베리아 지역의 문화적 영향이 없지 않지만, 자생적인 것과 중원 문화의 영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한다.⁴⁰⁾ 또한 고아시아족 설에서 외국 학자들의 논지를 비판 없이 사용된 것도 지적되었다.⁴¹⁾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과 관련해서는 전통시대 우리말에서 神을 나타내는 말이 ‘곰’·‘곰’·‘고마’이므로 고조선 건국 신화의 ‘熊’은 神을 뜻하는 ‘곰’·‘곰’의 類音에서 생긴 이차적·부수적 話素라는 연구가 주목된다.⁴²⁾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화소를 위시한 시베리아 기원설은 위와 같은 여러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라 하기는 어렵다. 실재 한국인의 종족적 기원 및 신석기·청동기 문화의 원류가 북방 시베리아 또는 만주 지역에서 유입되었고 그 지역에만 집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고유성 및 내재적 발전론은 축소되고 등한시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을 토데미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민족기원론과 연결

-
- 40) 李亨求, 「渤海沿岸 石墓文化의 源流」, 『韓國學報』 第50輯, 一志社, 1988, 266~322쪽; 「渤海沿岸 빗살무늬토기문화의 研究」, 『韓國史學』 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1~75쪽; 李鮮馥, 「동북아시아 구석기 고고학과 민족기원론」, 『한림과학원총서41 韓國 民族의 起源과 形成』 上, 도서출판 소화, 1997, 70~71쪽; 안승모, 「고고학으로 본 한민족의 계통」,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2003, 79~103쪽; 崔夢龍, 「한국 문화의 계통—다원론적 입장」,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주류성, 2004, 13~45쪽.
- 41) 李鮮馥, 「신석기·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1, 41~65쪽.
- 42) 辛鍾遠,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實體」, 『한국사연구』 118, 2002; 『삼국유사 새로 읽기—기이편』 1, 일지사, 12~49쪽.

하여 과거를 구현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간의 연구는 만주-통구스 나아가 시베리아 지역의 유사 사례 및 공통의 문화적 속성에 경도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문화의 보편성 및 전과론의 시각에 치우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사 분야의 연구는 인류 역사의 '보편성'과 특정 대상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넓은 시야에서 보편의 문화적 유산에 집중해 보았다면, 반대로 한국사 안에서 유사 사례를 찾고 문화의 고유성 측면을 고찰하거나, 기록의 형성 및 전승의 과정 또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가령, 곰과 호랑이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산)신으로 여겨졌던 기록 및 풍속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과 호랑이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호랑이를 신으로 여기는 풍속은 『삼국지』 동이전 濊條를 비롯하여,⁴³⁾ 근래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한 민간·산신 신앙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곰 역시 호랑이만큼은 아니지만, (산)신으로 여겨지거나 '熊'자가 神의 의미로 쓰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惠通降龍 조에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龍이 기장산으로 가서 熊神이 되어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침이 더 심해지자 혜통이 불살계를 내려 神의 해악을 그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⁴⁴⁾ 용이 산으로 가면서 곰으로 변화하는 맥락인데, 곰 역시 용과 마찬가지로 神으로 여겨지고 神을 표기하는 하나의 문자로 관념화되어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⁴⁵⁾

같은 책 大城孝二世父母 조에는 “대성이 토함산에 올라 사냥을 하다

43)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30 濊,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謂舞天, 又祭虎以爲神.”

44) 『三國遺事』 卷5, 神呪6, 惠通降龍, “龍既報冤於恭, 往機張山爲熊神, 慘毒滋甚, 民多梗之, 通到山中, 諭龍授不殺戒, 神害乃息.”

45) 朴恩用, 「鷄林類事的「虎曰監」에 對하여」, 『국문학연구』 5,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소, 1976, 148쪽.

가 곰을 잡았는데, 그 곰이 꿈에 귀신으로 나와 죽이려 하며 자신을 위해 절을 지으라 하였고, 이에 대성이 곰을 잡은 자리에 장수사를 지었다”고 한다.⁴⁶⁾ 곰을 위해 절을 지었다 함은 위의 혜통향릉조와 마찬가지로 곰을 신으로 여겼거나, ‘熊’ 그 자체가 산신을 뜻하는 글자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의 여러 신화와 풍속에서 龍·虎·熊은 신으로 여겨졌고, 신을 표기하는 글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熊’은 동물 곰의 이미지보다도 한국 고유어에서 神이 「감」·「검」·「곰」의 발음이고 그 발음을訓으로 하는 글자이기에 ‘熊’자가 神의 일컫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한 언어학·민속학 분야의 연구를 활용하여 고조선 건국 신화의 ‘熊’ 역시 신을 뜻하는 글자로 들어간 것이며, 곰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이후에 붙여진 것이라는 해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⁴⁷⁾

이러 시간적·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으며 역사의 계승 관계에 있는 삼국의 건국 신화와도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몽은 단군의 자손으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고구려 건국 신화의 구조는 고조선 건국 신화와 유사하기도 하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웅녀는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주몽의 어머니 유화에 해당한다. 유화는 강의 신이며 지상의 신이라 할 수 있는 河伯의 딸이다.

신라 건국 신화에도 동물 白馬와 雞籠이 등장하지만, 이를 부족 또는 인물을 상징하는 토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백마는 하늘을 오가고 계룡은 우물에서 나오므로 천신과 지신에서 이어지는 존재이다. 고구려의 경우 천신의 아들과 지신의 딸이 결합하여 건국 시조를 낳고, 신라의 경

46) 『三國遺事』 卷5, 孝善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既壯, 好遊獵. 一日登吐含山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訟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懼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喏, 既覺, 汗流被蓐.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47) 辛鍾遠, 앞의 책, 2004.

우 건국의 왕과 왕비가 곧바로 천신과 지신에 닿아 있다. 고구려는 5부, 신라는 6부가 연합하여 초기 국가를 이루는데, 왕을 내는 부를 포함한 어떠한 대상도 토렘으로 표상화되어 등장하지 않는다. 신라 6부 관련 기록에서 확인되듯, 그들의 시조 신화 역시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는 구조이다.⁴⁸⁾ 고구려·신라의 건국 신화 역시 천신과 지신의 결합에 의해 건국 시조가 태어나는 맥락이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 역시 지상의 신 내지 산신을 대상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고조선 건국 신화는 일제강점기 최남선부터 몽골 게세르 신화와 유사성이 언급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자세히 비교하여 전반적인 내용 구조를 비롯한 여러 화소의 공통적 원형을 고찰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 연구는 게세르 신화와 공통적 원형을 단서로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곰과 호랑이를 산신으로 파악하며 천신계 영웅인 환웅에게 포섭되거나 축출되는 맥락으로 이해한다.⁴⁹⁾ 곰 토렘 및 시베리아기원설과 같이 문화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이웃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곰이 산신으로 여겨지는 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곰과 호랑이를 토렘으로 여기는 연구는 다른 유형의 고조선 건국 신화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여러 유형의 단군신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단군신화는 일연의 『삼국유사』(1281) 외에도 이승휴의 『제왕운기』(1287)에도 실려 있는데, 거기서는 “환웅(단웅)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손녀가 檀樹神과 관계를 맺어 단군을 낳았다”는 내용이다.⁵⁰⁾ 또 조선시대 설암 추봉이 쓴 『妙香山志』에서는 “환웅이 백호

48)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237~ 239쪽.

49) 이선아, 『단군신화와 게세르칸』, 민속원, 2020.

50) 『帝王韻紀』 下卷, 前朝鮮紀,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 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 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云云. 令孫女飲藥, 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와 관계를 맺어 단군을 낳았다”는 내용의 단군신화가 전한다.⁵¹⁾ 각각 내용이 조금씩 다른 여러 유형의 단군신화가 전하지만, 단군신화는 본디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그 원형은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단 하나의 신화에서 출발한다.

그간 고조선 건국 신화에 관한 연구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화를 주 논의 대상으로 해 왔다. 그러한 경향은 근대 일본인들의 연구부터 두드러지는데, 그들의 연구는 『삼국유사』 찬자의 개작·날조에 의해 신화가 형성되었으므로 고조선의 역사성이 없다는 논지였다. 그리고 그 외의 문헌에서 확인되는 고조선 건국 신화는 모두 『삼국유사』의 것보다 시기가 늦은 그 아류로 취급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만을 중요시하며 그것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향은 이후 최남선을 비롯한 국내 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⁵²⁾ 『삼국유사』가 가장 앞선 시기의 문헌이며 그것에 수록된 신화의 내용이 가장 풍부하므로 그것이 원형일 것이라는 단상과 그 외의 신화를 배제하는 경향은 국내 연구에서도 지속되었다. 비록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며 『삼국유사』에 수록된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역사성을 입증하려 했지만, 그들의 구축해 놓은 논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삼국유사』가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이고 그것에 수록된 신화의 내용이 가장 풍부하므로, 그 신화를 원형으로 보는 경향은 좀 더 논의해 볼 문제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편찬 연대는 불과 6년 차에

名檀君. 據朝鮮之域, 爲王.”

- 51) 『雪巖雜著』卷一, 妙香山誌, “往事鴻荒 難爲口實 第代朝記云 桓仁之子桓熊 降于太白山神檀下居焉 熊一日與白虎交通 生子 是謂檀君 爲我東立國之君長 而與帝堯並年 則非世人愛奇踵謬之說明矣.”(『한국불교전서』, 동국대학교, 1988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index>))
- 52) 김영남, 『시조 신화 연구- 한국 신화학의 「근대성」 극복을 위하여-』, 제이앤씨, 2008, 84~90쪽.

불과하므로 동시대의 문헌이라 할 수 있으며, 각각 『古記』와 『本紀』를 인용하여 수록하였으므로 그 편찬 연대로 우열을 논함은 의미 없다. 『묘향산지』에 수록된 신화 역시 『第朝代記』를 인용한 바이고, 불교·도교 등의 문구 및 종교관에 입각한 후대의 가필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앞의 두 신화보다 원형에 더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⁵³⁾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화소가 들어가 있음은 오히려 후대의 윤색 및 재가공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어느 유형의 고조선 건국 신화가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왕운기』와 『묘향산지』 등에 전하는 단군신화와 비교하여 곰의 실체 및 상징성을 살펴봄은 유효하며, 나아가 신화 원형의 구조적 맥락에 다가가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제왕운기』에서 단군은 ‘檀樹神’과 ‘孫女’ 사이에서 태어난다. 두 차례 ‘云云’으로 생략되어 ‘단수신’과 ‘손녀’의 등장 배경 및 그 실체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수신은 환웅이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고 그 뒤 ‘단웅천왕’이라 일컬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환웅(단웅)과 같은 실체로 판단된다. 『제왕운기』 본문의 시에서 단군을 환인(석제)의 손자라고 한 것을 통해 볼 때도 단군의 아버지 단수신은 곧 환웅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손녀는 보통 환웅의 손녀로 해석하는데, 그 경우 할아버지와 손녀 간의 근친상간이 되며, 손녀 역시 신격인데 신과 관계를 갖기 위해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여 ‘熊女’의 오기로 판단한다.⁵⁴⁾ 단수신을 환웅으로, 손녀를 웅녀로 볼 경우 사실상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와 별 차이 없고, 사실상 그에 의존한 추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제왕운기』에 수록된 고조선 건국 신화의 손녀를 원문으로 인정

53) 허홍식, 「雪巖秋鵬의 妙香山志와 檀君記事」, 『청계사학』 13, 1997.

54) 崔炳憲, 「檀君認識의 歷史的 變遷—고려시대 檀君神話 傳承文獻의 檢討—」,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50~152쪽.

하며, 환웅(단웅)의 손녀가 아닌 환인의 손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⁵⁵⁾ 환웅을 환인의 庶子라 함은 환웅과 형제인 환인의 또 다른 아들이 상정되고, 손녀는 곧 그의 딸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단수신(환웅·단웅)과 손녀는 삼촌과 조카딸의 관계이며, 그 둘의 혼인은 叔姪간의 혼인으로 고대사회에서 흔한 사례라 한다. 손녀를 오기가 아닌 원문으로 인정하고 그를 환인의 손녀라 한다면 그 또한 神格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다음으로 『묘향산지』의 단군신화를 통해서 보면, 환웅과 관계를 맺어 단군을 낳는 상대는 백호이므로, ‘백호’가 곧 『삼국유사』의 ‘곰(웅녀)’이며 『제왕운기』의 ‘손녀’에 해당한다. 백호는 보통의 호랑이보다 더 영험함을 가진 山神이다. 『묘향산지』에는 백호와 관련하여 약을 먹고 사람이 되는 식의 서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욱 직접적으로 신으로 표상화된 화소라 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고조선 건국 신화는 등장하는 각각의 화소가 다르고 그에 따라 서사의 차이는 있지만, 환인-환웅-단군의 계보와 전반적인 서사의 구조는 같다. 하늘의 아들 환웅이 지상의 세계로 내려와 특정의 대상과 관계를 가져 시조 단군을 낳았다는 맥락이다. 『제왕운기』와 『묘향산지』에 있는 고조선 건국 신화와 접점을 모색하며 신화의 원형을 찾아가자면, 『삼국유사』의 곰 역시 신격이며 신의 표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국 신화의 구조는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 신화에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다만 시조의 모계가 땅의 신 내지 水神으로 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고조선 건국 신화 중 『묘향산지』의 백호는 산신이므로 수신과 같은 땅의 신이다. 큰 틀에서 보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하여 시조를 낳았다는 구조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의 곰 역시 산신과 같은 지상의 신을 표상화 한 것이고, 그로부터 곰과 관련된 이야기가 파생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하여

55)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수목신앙」, 『한국사학사학보』 8, 2003(신종원, 앞의 책, 58~60쪽).

건국 시조를 낳았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고, 그것이 고조선 사람들의 원초적 자의식이며 국가 시조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관념이 고구려·신라와 같은 후대의 나라에 이어져, 한국 고대 국가의 공통적이며 기초적인 건국 신화의 유형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고조선 건국 신화가 민족기원론 및 민족문화의 원류와 관련하여 논의됨은 당연한 일이다. 그 논의는 그간 주로 꿈 화소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꿈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꿈이 부족을 표상하는 토템이라는 논조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및 토데미즘은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였고 그것이 강조되는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한편으로 고조선 건국 신화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대응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고, 민족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담론의 소재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주의를 끌며 하나의 시각으로 경도된 면이 없지 않다. 비록 여러 연구에서 깊이 있게 고찰하였지만, 토데미즘이 진실인양 전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이어간 경우가 많았고, 반대의 논리 및 다르게 볼 여지를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한국 학계의 논의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비판의 논조는 한국사에 집중하고 고유성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논의가 원시 인류 사회의 보편성에 관한 인류학적 이론과 이웃 지역과의 유사함 및 외부 유입설에 치중되면서 지나치게 거대 담론으로 흘러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반론의 성격이 짙다.

한편, 신화를 해석할 때 하나하나의 화소에 역사적 의미를 두며 지나치게 역사적 실질성을 고증하는 성향 또한 경계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

각한다. 가령 곰과 관련하여 이후 따라붙는 마늘, 쑥, 100일 등의 화소 하나하나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의미 부여 및 고증을 시도함은 신화를 신화로써 음미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사료가 극히 부족한 상고의 역사를 반영한 신화이다 보니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며 신중하게 접근함이 당연하지만, 큰 틀의 구조에서 조망하고 후대 전승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다.

또한, 고조선 건국 신화와 한·예·맥의 종족성 및 그 명칭을 연결 짓는 연구는 신화의 해석과 역사 고증에 더 큰 오류를 낳고 있다. 고조선 건국 신화의 공간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한·예·맥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그러한 시각의 연구는 고조선을 비롯한 한국 상고사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민족주의·국수주의적 성향이 짙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두진,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1999.
- 김영남, 『시조 신화 연구- 한국 신화학의 「근대성」 극복을 위하여-』, 제이앤씨, 2008.
- 金載元, 『檀君神話의 新研究』, 탐구당, 1979(초판 1947).
- 金貞培,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 리지린, 『고조선 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도서출판 열사람, 1989).
-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987.
-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개조사, 1933(윤한택 역, 『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 현실, 1989).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서영대 편집, 『〈북한학계〉 단군 신화 연구』, 백산자료원, 1995.
-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기이편-』, 일지사, 2004.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 이선아, 『단군신화와 계세르칸』, 민속원, 2020.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崔南善, 전성곤·허용호 옮김,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2. 논문

-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2) 『역사과학』 1988년 4호
- 곽진석,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곰 신화의 양상과 유형에 대한 연구-」, 『동부아문화연구』 26, 2011.
- 金元龍, 「韓民族의 形成과 先史時代」, 『韓國學入門』, 대한민국의학술원, 1983.
- 金廷鶴, 「韓民族의 原流-文獻 및 考古學的 考察」, 『韓國史論』 14, 국사편찬위원회, 1984.
- 金寬雄, 「古朝鮮의 檀君神話와 東夷文化의 聯關性-곰 토tem 숭배를 주축으로

- 한 신화전설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5, 2011.
- 김관웅,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동이문화의 연관성-곰 토LEM 숭배를 주축으로 한 신화전설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5, 2011.
- 金杜珍, 「檀君神話의 文化史的 接近」, 『한국사학』 11, 1990.
- 김성환,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2022.
- 金貞培, 「古朝鮮의 住民構成과 文化的 複合」, 『백산학보』 12, 1972.
- 金廷鶴, 「檀君神話와 토LEM이즘」, 『역사학보』 7, 1954.
- 리상호, 「단군 설화의 역사성」(상)(하) 『역사과학』 1962년 3~4호.
- 李弘植, 「檀君神話와 民族의 理念」, 『국사상의 제문제』 제1집, 1959.
- 문창로, 「한국 고대 건국 신화의 이해 방향」,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1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출판사, 2014.
- 朴光用, 「檀君認識의 歷史的 變遷-조선시대-」,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증보판).
- 朴恩用, 「鷄林類事的 「虎曰監」에 對하여」, 『국문학연구』 5,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1976.
- 박준형, 「리지린의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古朝鮮의 研究』의 발견과 검토」, 『선사와 고대』 62, 2020.
-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의 실체」, 『한국사연구』 118, 2002.
-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수목신앙」, 『한국사학사학보』 8, 2003
- 안승모, 「고고학으로 본 한민족의 계통」, 『한국사 시민강좌』 32, 일조각, 2003.
- 오영찬,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한국 상고 민족 담론의 창안-」 『한국문화연구』 37, 2019.
-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 李鮮馥, 「동북아시아 구석기 고고학과 민족기원론」, 『한림과학원총서41 韓國 民族의 起源과 形成』 上, 도서출판 소화, 1997.
- 李鮮馥, 「신석기·청동기시대 주민교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 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1.
- 이은창, 「삼국유사의 고고학적 연구-단군신화의 고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이종태, 「삼국시대의 '시조' 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

- 문, 1996.
- 이필영, 「단군 연구사」, 『증보판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2001 (초판 1994).
- 이형구,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그 후」, 『한국사시민강좌』, 2011.
- 李亨求, 「渤海沿岸 빗살무늬토기문화의 研究」, 『韓國史學』 10,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89.
- 李亨求, 「渤海沿岸 石墓文化의 源流」, 『韓國學報』第50輯, 一志社, 1988
- 임재해, 「고조선시대 곰과 범의 역사적 실체와 토맹문화의 재인식」, 『유라시아 문화』 6, 2022.
- 鄭景姬, 「동아시아 '天孫降臨思想'의 원형 연구」, 『백산학보』 91, 2011.
- 천관우, 「환웅족의 등장」, 『신동아』 6월호, 동아일보사, 1972.
- 崔南善, 「檀君論—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 문화 연원 연구—」, 『동아일보』, 1926(전성곤·허용호 옮김,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 崔南善, 1954, 「檀君古記箋釋」, 『사상계』 2월호(전성곤·허용호 옮김,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 崔夢龍, 「한국 문화의 계통—다원론적 입장」, 『동북아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주류성, 2004.
- 崔炳憲, 「檀君認識의 歷史的 變遷—고려시대 檀君神話 傳承文獻의 檢討—」,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허흥식, 「雪巖秋鵬의 妙香山志와 檀君記事」, 『청계사학』 13, 1997.
- 홍기문, 「단군 신화」, 『조선신화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4.
- 黃溟江, 「檀君神話의 한 研究」, 『백산학보』 3, 1967.

3. 일본 연구

- 加藤九祚, 「ツングースの神話と朝鮮の檀君神話」, 『北東アジア民族學史の 研究』, 恒文社, 1986.
- 今西龍, 「檀君考」, 『靑邱說叢』 1, 京城: 靑邱學會, 1929(『朝鮮古史의 研究』, 京城: 國書刊行會, 1970).
- 大林太郎, 1974, 「朝鮮의 檀君神話とツングース族의 熊祖神話」, 『東京大 教養學 科紀要』 7(1984, 『東アジア의 王權神話』, 弘文堂.

- 三品彰英, 「久麻那利考」, 『建國神話論考』, 東京: 目黒書店, 1937(『三品彰英論文集 第二卷 建國神話の諸問題』, 東京: 平凡社, 1977).
-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 上, 東京: 塙書房.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 上, 東京: 塙書房, 1975.
- 齋藤忠,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圖」, 『東アジア葬・墓制の研究』, 東京: 第一書房, 1987(김진광 번역,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 田中俊明,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33 (1982.6月号), 東京: 自由社(송지연 번역,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싸고－사료비판의 재검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 井上秀雄, 「朝鮮の建國神話」,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株式會社, 1974.
- 林泰輔, 「太古史 開國ノ起源」, 『朝鮮史』, 東京: 吉川半七板鉛活字本, 1892(『조선사』 원문, 인문사, 2013).
- 落合直澄, 「檀君」,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藏版, 1888.
-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東京: 學習院大學, 1894(『白鳥庫吉全集』 3, 東京: 岩波書店, 1970).

【ABSTRACT】

The Bear Motif in the Founding Myth of Gojoseon and the Theory of National Origin

Jeon, Jin-kook

The bear motif of the founding myth of Gojoseon(古朝鮮) was the main argument for modern Japanese scholars to deny the historicity of the myth and emphasize its fictionalit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riticize the Japanese's argument and to reveal that this myth reflects the facts, Korean scholars have examined the symbolism and historicity of the bear and its story. In the process, a totem theory was suggested that the bear symbolizes the tribe of the Gojoseon period. Because the trend of venerating and considering the bear as a totem was prevalent in northern Siberia, so the theory of national origin was also discussed that residents moved from Siberia to Gojoseon during the Neolithic period or that culture affected Gojoseon. The study of approaching bear in the founding myth of Gojoseon from the perspective of totemism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overcame the denial of the founding myth of Gojoseon by the Japanese scholars and gave historic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perfect interpretation to identify bears in this myth as totems and that the idea of bear worship originated from northern culture.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ancient founding myth, including the founding myth of Gojoseon, is the birth of

the founding founder by the meeting of the heavenly god and the earth god. Moreover, compared to other types of Gojoseon founding myths, the beings corresponding to the bear is the Dansusin(檀樹神) or white tiger, which can be called forest spirits or mountain gods. Therefore, the bear of the myth of the founding of Gojoseon recorded in *Samgukyusa*(三國遺事)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symbol of the God on Earth.

【Key words】

Gojoseon, Dangun, Dangun myth, Bear, Theory of National Origin

